

구례, 다시 찾고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 확립

지난해 관광객 649만명… 자연 기반 힐링 수요 흡수
그린케이션·레인보우워크 등 '섬진강 관광벨트' 구축

구례군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며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21일 구례군과 한국관광공사 디아이티랩 등에 따르면 구례군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 2021년 528만명, 2022년 581만명, 2023년 628만명, 2024년 647만명, 지난 해 649만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관광객 소비 지출액도 2021년 364억 원, 2022년 401억원, 2023년 419억원, 2024년 436억원, 2025년 453억원으로 매년 구례에서 지갑을 열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스쳐가는 관광지'를

뛰어넘어 자연을 기반으로 한 힐링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구례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군은 산동지구 명소화 조성과 함께 섬진강 대숲길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생명치유의 숲 조성, 그린케이션 관광 스테이조성 등 체류형 관광사업을 벌여 왔다.

또 산수유축제, 섬진강변 300리 벚꽃 축제 등 계절형 축제를 매년 예측 가능한 시기에 개최해 관광객들의 여행 계획 수

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특히 해외보다 국내, 장거리 보다 근거리, 대규모 보다 소규모 여행 패턴을 살펴 숙박, 카페, 소규모 체험장, 둘레길, 산책로 등을 구축했다.

군은 이제 '체류형 관광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다시 찾고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 인프라와 권역별 관광 벨트, 체험, 야간 콘텐츠, 주차 등 기반 시

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월 오산 케이블카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자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국립공원계획에 반영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린케이션, 레인보우워크, 섬진강 스테이 등 특화상품과 숙박·체험을 결합한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를 구축, '하루 보고 떠나는 여행'을 '며칠 머무는 여행'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섬진강 대숲

길 일원에 미디어아트 설치, 지초봉 전망대, 산수유자연휴양림에 '나만의 별장', 자리산정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을 조성해 나간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를 찾는 관광객이 즐가한 것은 자연과 SNS, 축제, 트레드, 걷기콘텐츠가 선순환을 이루며 만들어 낸 결과다"며 "이제는 하루 보고 떠나는 관광지에서 며칠씩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구례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며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21일 구례군과 한국관광공사 디아이티랩

등에 따르면 구례군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

2021년 528만명, 2022년 581만명,

2023년 628만명, 2024년 647만명, 지난

해 649만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관광객 소비 지출액도 2021년 364억 원, 2022년 401억원, 2023년 419억원, 2024년 436억원, 2025년 453억원으로 매년 구례에서 지갑을 열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스쳐가는 관광지'를

뛰어넘어 자연을 기반으로 한 힐링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구례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군은 산동지구 명소화 조성과 함께

섬진강 대숲길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생명치유의 숲 조성, 그린케이션 관광

스테이조성 등 체류형 관광사업을 벌여 왔다.

또 산수유축제, 섬진강변 300리 벚꽃

축제 등 계절형 축제를 매년 예측 가능한

시기에 개최해 관광객들의 여행 계획 수

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특히 해외보다 국내, 장거리 보다

근거리, 대규모 보다 소규모 여행 패턴을

살펴 숙박, 카페, 소규모 체험장, 둘레길,

산책로 등을 구축했다.

군은 이제 '체류형 관광지'에서 한 단

계 업그레이드 시켜 '다시 찾고 오래 머

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시켜 나간

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 인프라와 권역별 관광

벨트, 체험, 야간 콘텐츠, 주차 등 기반 시

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월 오산 케이블카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자리산 케이블카 설

치사업도 국립공원계획에 반영시켜 나간

다는 구상이다.

그린케이션, 레인보우워크, 섬진강 스

테이 등 특화상품과 숙박·체험을 결합한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를 구축, '하루 보고 떠나는 여행'을 '며칠 머무는 여행'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섬진강 대숲

길 일원에 미디어아트 설치, 지초봉 전망

대, 산수유자연휴양림에 '나만의 별장',

자리산정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을

조성해 나간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를 찾는 관광객

이 즐가한 것은 자연과 SNS, 축제, 트레

드, 걷기콘텐츠가 선순환을 이루며 만들

어 낸 결과다"며 "이제는 하루 보고 떠나

는 관광지에서 며칠씩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장흥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 겨울철 사진명소 '눈길'

평일 하루 평균 200명 사진 작가·동호회원 발길 이어져

장흥군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이 겨울철 사진명소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국 사진 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장흥군에 따르면 겨울이 되면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에는 전국 사진작가와 동호회 회원이 전국 각지에서 대덕읍을 찾고 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200여명, 주말에는 500여명의 사진작가와 동호회 회원이 전

국 각지에서 대덕읍을 찾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인 17일과 18일 1000여 명이 응암마을을 방문해 마을 일대가 사진작가와 동호회원들로 북적였다.

사진 촬영은 주로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이뤄지며, 이 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을 수 있다.

촬영에 나선 사진작가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푸른빛을 품은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사진 촬영객들의 방문으로 겨울철 한산하던 마을에 모처럼 활기 넘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대덕읍 매생이는 칼슘과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한 겨울철 대표 건강식품이다"며 "사진 촬영객 방문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지원 연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장흥군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이 겨울철 사진명소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국 사진 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순천 원도심 콘텐츠 창작 중심지 조성

내달 4일까지 빈 건물 모집



순천시가 원도심을 문화콘텐츠 창작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빈 건물 모집에 나선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상권이 위축된 중앙동 일대의 빈 건물을 모집해 애니·웹툰·캐릭터 등 콘텐츠 창작기지로 조성한다.

사업 구역 내 빈 건물 임대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2월 4일까지 순천시 콘텐츠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 건물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입주할 기업의 규모와 선호도를 반영해 선정된다. 건물이 선정되면 상생 협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에 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도 중앙동 일대 빈 건물 18동(35실)을 리모델링해 애니·웹툰·분야 28개 기업을 입주시켰고, 이를 통해 원도심

고흥, '지속 경영' 가업승계 돋는다

지원금 상향…1인당 최대 2500만원

고흥군은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모집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지원금을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자부담 10% 포함)으로 상향한다.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은 (조)부모의 농·수·축산업 및 소상공업을 승계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설 투자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설·장비 구축 비용 증가 등 최근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 가업승계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했다.

지원금은 농·수·축산 시설물 설치·개보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점포 노후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은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가업승계 청년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과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에 있고, (조)부모의 농·수·축산 또는 소상공업 등 기업을 승계받은 지 5년 이내인 청년이다.

사업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장 현장심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도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광양, 현장 중심 소통행정 본격 시동

죽림 농공단지 조성 현장 등 3곳 살펴

광양시는 최근 새해 첫 '현장 소통의 날' 일정으로 2차전지 관련 기업체 등 3개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본격 추진했다.

시는 매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시는 2차전지 관련 기업체, 현총합 공원 수목 정비사업 현장, 죽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 등 3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올해 첫 방문지로 2차전지 관련 기업체인 포스코HY클린메탈을 찾았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전기차 폐배터리와 배터리 재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리사이클 기술로 처리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유기금속을 회수하는 순환자원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이 자리에서는 2차전지 소재 산업과 리사이클 공정의 특성, 기업 비전 등에 대해 한 기업 브리핑을 들은 후 리사이클링 산

업의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중동 산 106-1 일원에 위치한 현총합을 방문해 수목 정비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매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시는 생육 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된 기존 수목을 제거하고 자연